

2017년 12월 24일, 대정읍 동일2리 동일2리경로당, 이현정 조사.
 문희봉(여, 1942년생, 대정읍 동일2리)

- 줄거리: 제보자의 지인이 친척집에 제사가 있어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떡바구니를 옆에 끼고 하얀 치마를 입은 여자가 다가와 자신이 고모라고 하여 따라가보니 공동묘지였다. 정신을 차리려고 돌을 두드려 돌가루를 내어 여자를 쫓아낸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확인 차 고모집에 방문하였는데, 고모는 자신은 어제 집을 나선 일이 없다고 하였다.

[제보자] 헛것은 저 왕대도로 사름이 살다그네, 술 잘 먹고 헤그네. 여기 동일리에서 친족집이 가그네 저 제사 보고 술 잘 먹으면, 여기 저 아래 집 짓엉 사는다. 그디 자꾸 와. 오다가 혼번은 그 어른 골은 거 나가 들엇주.

오다가 저 떡구덕이엔 현 옛날 떡구덕이 있어. 떡구덕 영 옆동에 지고, 하얀치메 저고리 입은 사름이 앞이 오멍 혼돌혼돌 허게

“나 니네 고모노렌.”

허멍. 그 사름 보고 고모노렌 허멍 저 혼돌혼돌 헨.

“나 저 느네 고모옌.”

허멍 허난 고모 조름에 쫓아가당 보난 공동묘지였다는 거라, 그 사름이. 공동묘에 가나네 고모는 죽지도 안 헛는데. 신평, 신평 살았는데. 아 경 헨 간 발이 툅툅 차다 보난, 무덤에 발이 차단 보난.

“하이고, 나 이젠 흘런 와젓구나.”

헤네 정신 차련에 어디 손에 피도 내우고 돌 닥닥 두르령 돌궤루 내나민 헛게는 사라지는 거주게. 경 헤네 이제 뒷날은 집에 왕 잇다네 신평 가 보젠, 고모사는 데 간 보젠.

“언치낙 고모님 어디 가옴데가?”

“나 아무 디도 아니 가오랏저.”

허난

“아이고, 언치낙 나 저 어디 고모노렌 헤연 떡구덕 들으곡 헤네 혼돌혼돌 오멍

나 곁이 따라가네 공동묘꺼장 가왓우다.”

게난

“아이고, 헛것 흘렀구나게, 헛것 흘렀구나게.”

경 곶아렌.

[조사자] 아까 처음에 어디 사는 사름마씨?

[제보자] 왕대도로, 왕대도로 사는 사름이 경 동일리에 간 제사 먹어그네. 술 먹으민 그후
룩 들어 제사 먹영 밤이도 오곡 술, 제사 먹영 아니라도 오래 놀다그네 오곡 헤
엿는디 그 사름이 그런 꼴을 당헤엿어.

- 핵심어: 하얀 치메(하얀 치마), 공동묘지, 왕대도로, 제사, 밤, 술, 고모, 헛게(귀신), 떡구덕(떡바
구니)